



#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 Contents

- 통계로 본 이슈
  - 2018년 1분기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 구조
- 이슈페이퍼
  - 보다 긴밀한 한러 협력 필요한 북극해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일본 홋카이도 종합상사, 극동 러시아 진출 지원
  - 푸틴 대통령, 북극항로 물동량 증대 촉구
  -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풍력 발전 개발 계획
  - 중국 당국, 연벤-블라디보스토크 교량 건설 참여의사 밝혀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새로운 창고단지 건설
- 주요 통계
  - 2018년 1분기 극동지역 국가별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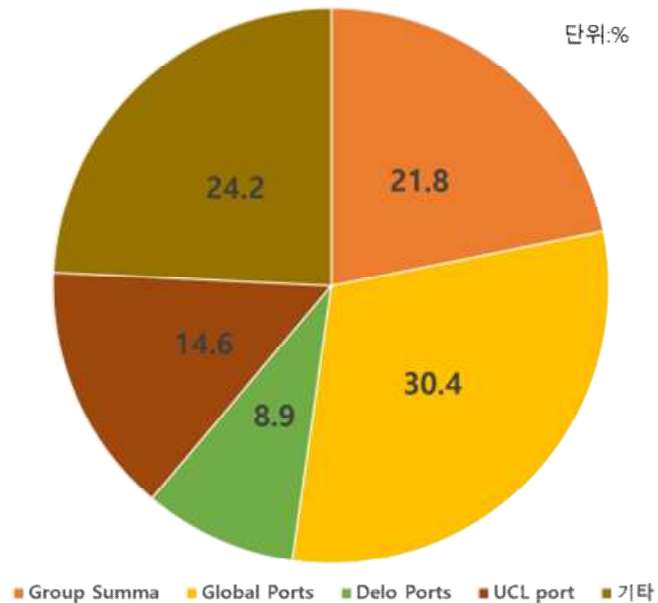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통계로 본 이슈

### 2018년 1분기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 구조

2018년 1분기 러시아 컨테이너 기업별 점유율 비교



자료: <http://infranews.ru/> (검색일: 2018년 5월 23일)

- AO 'First Container Terminal', Petrolsport 등이 속한 Global Ports는 보스토치니 항만에서 약 36만 5천TEU를 처리해 이는 러시아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의 약 30.4%를 차지했음
  - 'NUTEP container company'가 속한 'Delo' 그룹은 Global Ports의 30.75% 지분을 매수함에 따라 점유율이 2017년 6.7%에서 2018년 1분기에는 8.9%로 증가했음
  - 'NUTEP container company'는 2018년 1분기에 49%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2017년 1분기/2018년 1분기 컨테이너 기업별 처리량 비교 (단위:천 TEU)



구분		2017	2018	2017/2018, %	2018년 점유율 %
Global Ports :		323.85	364.96	12.7	30.4 (100)
Global Ports :	AO "First Container Terminal"	119.53	140.55	17.6	(38.5)
	"Vostochnaya Stevedoring Company" (VSC) LLC	82.34	99.6	21	(27.3)
	Petrolesport	61.92	67.19	8.5	(18.4)
	MOBY DIK Co. Ltd	39.52	36.06	-8.8	(9.9)
	UST-LUGA CONTAINER TERMINAL	20.55	21.57	5	(5.9)
Delo Ports :		71.69	106.83	49	8.9
Group Summa :		231.32	261.79	13.2	21.8 (100)
Group Summ a :	Commercial Port of Vladivostok	94.5	110.87	17.30	(42.4)
	JSC "NOVOROSLESEXPORT"	59.95	70.62	17.8	(27)
	NCSP Group	46.67	46.62	-0.1	(17.80)
	Baltic Stevedoring Company	30.2	33.67	11.5	(12.9)
UCL Port :		162.58	174.7	7.5	14.6 (100)
UCL Port :	Container Terminal Saint-Petersburg	157.58	168.54	7	(96.5)
	JSC "Sea Port of Saint-Petersburg"	5	6.16	23.3	(3.5)
기타		275.07	29.049	5.6	24.2
합계		1064.52	1198.76	12.6	100

자료: <http://infranews.ru/>(검색일: 2018년 5월 23일)



■ 참고자료 : <http://infranews.ru/logistika/containeri/51409-kontejnernyj-otc-het-za-1-kv-2018-goda-ch-8/> (검색일: 2018년 5월 23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 이슈페이퍼

### 보다 긴밀한 한러 협력 필요한 북극해

- 북극항로(NSR)시대가 세계의 경제 질서를 뒤바꾸는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물류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평가하고 있음
  - NSR은 △환경파괴 우려 △운항시간 제한 △높은 비용 등 상용화를 위한 선행과 제들도 많지만, 향후 △새로운 해상교역로 △미래 에너지 자원의 대안 공급처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음

#### 러시아의 북극항로 정책



자료: 안텍스 [www.yandex.ru](http://www.yandex.ru)(검색일: 2018년 5월 23일)



## 러시아 측 추진경과

- 북극해를 둘러싼 국가들 중 러시아는 가장 많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가장 많은 자원매장지를 확보하고 있음. 향후 북극해 개발로 가장 큰 수혜국으로 거론되는 러시아는 그 어떤 국가보다 정부 주도의 북극해 개발사업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3월 1일 러시아연방 의회에서 성공적인 북극항로 개발은 극동지역에서의 북극지역개발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대하고 경쟁력 있는 수송 동맥'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고 2025년 NSR의 화물 운송량을 연간 8천만 톤으로 증대 시킬 것을 지시함
  - 러시아 북극해 개발의 전략방향은 △자원개발 △새로운 판로확보 두 가지임
  - 러 에너지부에 따르면 러시아 관할 북극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2,600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극해 우선 추진 프로젝트로 정해진 바란데이(Varandey) 유전, 야말(Yamal) LNG, 타이미르(Taimyr) 석탄 등 15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11개는 석유 및 가스, 4건은 광석 및 석탄 개발 사업으로 모두 자원개발 사업임
  - 지난해 북극항로 운송량이 1,070 만 톤으로, 2016년 750 만 톤 대비 43% 증가했음
  -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극 항해선박에 662 통의 허가를, 외국 국적 선박에는 107 통의 허가 발급함
  - 가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야말 LNG 프로젝트 △캄차카 터미널 건설 △북극해 LNG 개발 프로젝트 3가지가 있음
  - 야말 LNG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는 연간 1,650만톤 규모로 시베리아 야말 반도에서 추진 중이며 중국, 프랑스 에너지 기업들도 참여 중이다. 러시아 최대 민영 가스기업 노바텍이 60%, 프랑스 토탈이 20%,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가 20% 지분으로 공동 개발 중임





### 야말LNG 프로젝트



자료: 타스통신 [www.tass.ru](http://www.tass.ru)(검색일: 2018년 5월 23일)

- 두 번째는 770억원 투자규모로 북극항로 기착터미널용으로 캄차카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북극항로 허브항의 역할을 위해 극동 캄차카주에 터미널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임. 사실상 러시아정부의 북극항인 인프라 개발의 주요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 주위의 평가임

### 캄차카 터미널 건설 사업



자료: 잘라토이로그 [www.zrpress.ru](http://www.zrpress.ru)(검색일: 2018년 5월 23일)





- 다음은 북극해 LNG개발 사업으로 야말 LNG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민영가스기업 노바텍이 참여한 가운데, 합작선으로 중국 CNPC,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프랑스 토탈 등을 두고 협의 중임

- 자국의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북극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러시아 원자력쇄빙선 운영회사 아톰플롯, 러시아 최대 국영해운회사 소브콤플롯, 원유가스 시추업체 가즈플롯 등임

### 주변국과 협력

-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북극해 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의 협력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잠재 협력국인 아시아 파트너와의 협력점도 적극 모색 중임
  - 일본은 러시아 무르만스크주를 방문해 북극항로 관련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수산물의 운송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협력 사업을 타진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중국 측에 북극해 LNG 플랜트 건설을 비롯해 북극해 인프라 등 개발 프로젝트의 공동추진을 적극 제안 중임

### 한러 협력의 필요성

- 북극이사국은 총 8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인 가운데, 한국은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상시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며 북극문제에 참여할 기회를 얻음
- 한국의 북극해 참여시 러시아와의 협력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가 있음
  -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북극해 지역을 전략적 자원공급지로 정하고 북극 자원개발을 추진 중임



- 한국이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 관할수역을 반드시 지나야 함
- 러시아는 북극관련 국제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 북극해 개발을 주도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이 본격적인 북극진출시 우선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러 협력방향

- 한러 양국은 정부차원의 건설적인 대화로 북극협력기구를 설치해 공동연구활동을 비롯한 협력 전반을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제일 먼저 양국 간 북극협력종합전략을 수립해 양국 협력에 대한 종합전략수립이 필요함
  - 또한 한러 북극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제언을 위한 연구 활동, 그리고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한러북극협력센터 설치를 검토할 가치가 있음
- 한국의 활발한 북극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지금 보다 기업이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도 기업들의 북극사업모델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함
  - 북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NSR 물동량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컨대 정부는 정책적으로 러시아산 목재, 석탄, 철광석 등 양질의 원자재 도입정책을 펼치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함
  - 그 다음으로 보다 견고한 물류운송 인프라 건설로 이어져야 하고, 결국 대륙붕개발 참여 등 에너지개발 사업도 참여해야 함

### 새로운 협력사업 제언

- 추진 중인 한러 경협사업 가운데 북극과 연관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
  - 러시아가 국가적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연해주 조선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해 쇄빙선 등 특수선박 개발에 참여해야 함



- 남북러 3각협력사업으로 거론 중인 가스관 사업과 북극해 에너지개발과 연계한 경험의제를 러시아정부와 협상해 추진기반을 확보해야 함
- 사하공화국을 우리 북극사업의 전략지역으로 선택해 지역의 원자재 개발에서 운송까지 참여함으로써 북극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함
- 지속적인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는 북극항로 주변의 원자재 가공사업에도 진출해야 함

■ 참고자료 : <http://tass.ru/info/4999806> (검색일: 2018년 5월 15일)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5116382> (검색일: 2018년 5월 18일)  
<https://riafan.ru/1056934-prioritetnoe-napravlenie-ekspert-rasskazal-o-priyazaniyakh-ssha-na-rossiiskii-severnyi-morskoi-put> (검색일: 2018년 5월 21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일본 홋카이도 종합상사, 극동 러시아 진출 지원

- 홋카이도 은행 등이 출자한 지역 상사인 홋카이도종합상사(北海道総合商事)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고,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 홋카이도종합상사는 극동지역에 진출한 온실채소배양시설을 확대하고, 수산가공 기술을 러시아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임
  - 러-일 정상은 2016년 극동에서의 공동 경제 활동의 실현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도시환경 정비, 극동 산업진흥 등 8개 항목에 대한 경제협력 플랜을 제시함
  - 본 계획은 러-일 경제협력 플랜의 일환으로 홋카이도종합상사는 극동JPPV<sup>1)</sup>(the Japanese Project Promotion Vehicle in the Far East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협력하여 극동 지역 사업을 확대할 예정임
  - 올해 3월에 설립한 극동JPPV는 극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조언 및 경제 특구, 자유항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홋카이도종합상사는 한랭지 채소시설 건설 등을 실시하는 홋코우(ホッコウ)사와 연계해, 야쿠츠크(Yakutsk)시의 온실채소 생산시설을 극동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 2019년까지 채소공장 부지면적을 현재의 1ha에서 총 3.2ha까지 확대할 계획임
  - 현지에서 생산한 토마토와 오이는 선도와 맛이 뛰어나 현지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2배나 높으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1) 러시아 정부조직과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이 1/2씩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



- 러시아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산가공기술 제공 및 러시아 수산물 수입을 확대할 계획임
  - 기후 변화 등으로 홋카이도 지역 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수산가공기술을 러시아 기업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러시아의 수산물을 일본 기업이 우선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극동지역에 친환경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도 추진할 계획임
  - 쓰레기 소각 시 연기, 다이옥신(Dioxin)이 발생하지 않는 '무연 소각로'를 건설하고, 소각 열은 의료기관 등에서 난방으로 활용할 계획임

■ 참고자료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30767540R20C18A5L41000/> (검색일: 2018년 5월 23일)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 푸틴 대통령, 북극항로 물동량 증대 촉구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기를 맞이하며 이번 정부를 위한 포괄적인 아젠다를 발표했으며, 그 중에서도 북극항로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밝힘
-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물동량을 2024년까지 연간 8천만 톤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함
  - 이는 푸틴 정부가 발표한 가장 야심찬 전망조차도 초과하는 수치로서 향후 북극항로는 해당 칙령(勅令)에 따라 개발될 예정임
  - 이번 연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가 향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송동맥(transport artery)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하지만 이런 푸틴 정부의 야심찬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동량 목표율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현재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물동량은 연간 약 1천만 톤에 불과한 실정인데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증가율은 현재 물동량을 단 8년 만에 8배로 증가시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러시아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Ministry)조차도 해당 목표율은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임
  - 지난해 천연자원부 장관은 북극항로를 통해 2030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약 7천 2백만 톤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 특히 이 중 절반은 LNG가 될 것이며, 대부분은 러시아 동부로 운송될 물량임





-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북극항로 물동량 목표율은 천연자원부가 언급한 예상 물동량 수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임

- 북극항로 물동량은 지난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바 있음
  - 1988년 650만 톤이었던 물동량은 1998년 146만 톤으로 감소했음
  - 급격히 감소한 물동량은 2016년에 들어서야 730만 톤을 기록하며 소련시대 이후 처음으로 회복세를 기록함
- 푸틴 대통령은 북극 개발을 최우선 아젠다 중 하나로 지정하여 추진 중이며, 추후 북극항로가 수에즈 운하와 경쟁이 가능한 상업 항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푸틴 정부의 아젠다 중에는 북극항로 외에도 기대 수명 증가, 빈곤 감소 및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 이런 아젠다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세계 5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번 정부가 발표한 최우선 아젠다에는 지난 2012년 푸틴 대통령이 발표했던 군사 문제나 국가 안보 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음

■ 참고자료 :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putin-decrees-an-increase-in-arctic-traffic#gs.HtJNaBg> 검색일: 2018년 5월 16일)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2018/05/its-order-kremlin-shipping-northern-sea-route-increase-80-million-tons-2024/>(검색일: 2018년 5월 15일)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풍력 발전 개발 계획

- 일본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2016년 경제협력협약 공동 프로젝트 중 하나인 풍력-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러시아 극동지역은 불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러시아는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합의한바 있음
- 풍력-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은 북극해와 접경하는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인 사하(Sakha)에 설치 될 예정임
  - 동 계획은 금년 여름 3기의 풍력 터빈이 러시아로 선적되어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험 가동은 장비가 추가되는 내년 가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풍력-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자료: <https://asia.nikkei.com>(검색일: 2018년 5월 15일)

-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은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형 디젤 연료 발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풍력-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의 도입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디젤 연료 소비를 약 20% 감축 시킬 것으로 예상됨
  - 동 계획으로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대 설치할 예정임
- 동 계획은 아베 총리가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 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합의를 이루면 본격적으로 진척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Japan-to-give-wind-power-a-spin-in-Russia-s-Far-East> (검색일: 2018년 5월 15일)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중국 당국, 연벤-블라디보스토크 교량 건설 참여의사 밝혀



중국-블라디보스토크 간 새 교량



자료: [www.steelguru.com](http://www.steelguru.com)

-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RIA는 “중국 당국이 러시아 페샤니 반도와 중국 동북부 옌벤 조선족 자치주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식 성명서를 인용 보도함
  - 비탈리 베르켄코(Vitaly Verkeenko)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은 옌벤 조선족 자치주 대표단과 프로젝트에 관한 협상을 진행함
  - 특히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교량 건설을 포함해 프리모리에1(Primorye 1) 및 프리모리에2(Primorye 2) 국제 회랑과 같은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전망을 논의함
  - 지난달 프리모리에1, 2 공동 개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정부 간 합의가 올해 계획되어 있다고 보도함
  -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은 “이 수송 경로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만까지 가장 짧은 화물 운송 경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광객 흐름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博鳌 Forum)에서 서명한 협약에 따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목표로 하는 공동 차량에 3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는 러시아 철도의 화물 운송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연간 약 1천억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양국 간 무역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https://russiabusinesstoday.com/economy/china-offers-to-boost-trade-by-building-bridge-to-russia/> (검색일: 2018년 5월 17일)  
<https://steelguru.com/infra/chinese-authorities-to-build-a-new-bridge-in-vladivostok/509116#> (검색일: 2018년 5월 17일)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새로운 창고단지 건설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인 ‘DOTY’사(ООО «ДОТ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상품 및 화물 보관 등을 위한 새로운 창고단지 건설에 착수함
  - 본 프로젝트는 극동개발공사의 허가 후 시작됐으며 약 370만 루블이 투자됨

‘DOTY’사 창고 관련 사진



자료: [http://www.zrpress.ru/business/primorje\\_14.05.2018\\_89091\\_v-primorje-nachal-rabot-u-torgovo-skladskoj-kompleks-ploschadju-911-kv-m.html](http://www.zrpress.ru/business/primorje_14.05.2018_89091_v-primorje-nachal-rabot-u-torgovo-skladskoj-kompleks-ploschadju-911-kv-m.html)(검색일: 2018년 5월 14일)

- 약 911㎡의 면적의 현대식 창고 단지는 화물을 하역 및 적재를 위한 공간 등이 구축되며 식품을 제외한 도소매 기업이 사용 가능함
  - ‘DOTY’사의 데니스 오라토프스키(Denis Oratovsky)대표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통해 경쟁기업들 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함
- 2016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은 약 118개 업체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 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한 약 432개 업체가 입주기업으로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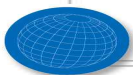


- 극동개발부는 올해 말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이 약 800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입주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문은 물류·운송이며 다음으로는 건설, 서비스 부문임
- 극동개발공사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다고 함
- 현재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은 약 654개 업체로, 약 4만 3,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입주기업들의 전체 투자규모는 약 3,750억 루블에 달함

■ 참고자료 : [http://www.zrpress.ru/business/primorje\\_14.05.2018\\_89091\\_v-primorje-nachal-rabotu-torgovo-skladskoj-kompleks-ploschadju-911-kv-m.html](http://www.zrpress.ru/business/primorje_14.05.2018_89091_v-primorje-nachal-rabotu-torgovo-skladskoj-kompleks-ploschadju-911-kv-m.html)(검색일: 2018년 5월 14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주요 통계



## 2018년 1분기 극동지역 국가별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지역	국가	2018년 1분기		2018년 3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CIS	아제르바이잔	427.7	-	108.7	-
	아르메니아	5,474.7	11.4	2,517.9	-
	벨라루스	13,589.0	10,544.9	2,362.9	4,757.5
	카자흐스탄	26,956.9	9,429.6	839.0	5,497.8
	키르기즈 공화국	47.6	-	-	-
	몰도바	16.6	2.0	16.6	2.0
	타지키스탄	112.9	-	-	-
	투르크메니스탄	181.4	-	127.2	-
	우즈베키스탄	23.6	473.7	-	37.6
	우크라이나	1,840.9	1,219.5	1,708.5	564.1
	소계	48,671.3	21,681.1	7,680.6	10,859.0
그 외	압하지아	-	-	-	-
	호주	472.1	1,437.3	30.5	356.6
	오스트리아	-	9,584.8	-	1,208.8
	알바니아	-	1.0	-	1.0
	알제리	0.9	-	-	-
	앙골라	2.7	-	2.7	-
	안도라	-	-	-	-
	아르헨티나	10.7	4,345.9	2,013.1	-
	아프가니스탄	-	1.3	-	-
	바하마	-	1.6	-	1.3
	방글라데시	1,466.4	947.9	87.4	208.1
	벨리즈 시티	-	-	-	-
	벨기에	770,743.9	4,204.9	258,502.0	1,118.6
	베냉	-	-	-	-
	버뮤다 군도	-	-	-	-
	불가리아	-	56.1	-	0.9
	볼리비아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5	-	1.3
	보츠와나	4,827.7	-	1,646.3	-
	브라질	1,354.2	28,302.9	1,350.7	5,947.9
	브루나이	16.2	-	11.2	-
	헝가리	-	3,173.0	-	1,929.8
	베네수엘라	0.2	-	-	-
	버진 제도	-	-	-	-



베트남	7,636.0	7,160.6	1,835.7	2,443.3
가봉	9.9	-	-	-
가나	0.2	-	-	-
과테말라	-	10.9	-	0.4
독일	5,882.7	16,248.2	1,987.0	5,380.9
온두라스	-	2.3	-	-
홍콩	42,891.3	1,018.8	18,452.3	343.6
그리스	-	53.1	-	44.5
그루지아	17.6	30.5	17.6	12.0
덴마크	3,362.0	1,913.6	1,926.4	1,470.6
도미니카 공화국	-	8.3	-	8.3
이집트	132,493.9	1,325.6	132,490.9	650.1
이스라엘	149,907.8	174.5	60,060.4	149.8
인도	255,798.3	10,197.2	96,754.3	4,418.7
인도네시아	10,447.7	4,147.0	9,844.4	1,846.6
요르단	-	-	-	-
이라크	5.1	5.1	2.1	-
이란	-	159.4	-	-
아일랜드	-	685.3	-	138.7
아이슬란드	-	2,708.4	-	162.2
스페인	-	10,970.4	-	868.2
이탈리아	147.4	82.2	0.7	3,470.8
캄보디아	-	10,919.9	-	-
캐나다	2,736.5	-	386.8	4,897.4
카타르	109.9	14.6	0.4	-
케냐	23.4	-	-	-
키프로스	58.2	678,183.1	-	-
중국	1,106,652.1	60.6	480,511.1	212,713.8
콜롬비아	406.2	-	1.1	0.3
콩고	46.5	-	43.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710.2	10.9	1,585.2	-
<b>대한민국</b>	<b>803,009.0</b>	<b>115,565.7</b>	<b>311,933.2</b>	<b>45,148.8</b>
코스타리카	-	13.4	-	3.6
코트디부아르	-	-	-	-
쿠바	-	15.3	-	14.6
쿠웨이트	1.0	-	-	-
퀴라소	-	-	-	-
라오스	-	-	-	-
라트비아	-	32.6	-	12.7
라이베리아	-	-	-	-
리비아	-	-	-	-
리투아니아	18.9	191.1	-	89.0
리히텐슈타인	-	-	-	-



룩셈부르크		1,170.2	-	640.7
모리셔스	-	1.1	-	-
마다가스카르	-	-	-	-
말레이시아	6,031.2	4,631.6	1,259.7	947.3
말리	-	-	-	-
몰타	-	8.3	-	-
모로코	-	0.5	-	-
마셜 제도	-	-	-	-
멕시코	675.8	2,821.7	672.8	772.7
몽골	11,285.8	170.2	1,425.5	79.8
미얀마	189.3	318.2	-	136.4
나이지리아	3,257.5	-	1.4	-
네팔	-	15.0	-	-
네덜란드	1,848.6	7,864.1	1,672.7	2,213.5
니카라과	-	4.8	-	-
뉴질랜드	89.2	260.8	22.5	114.6
노르웨이	65.3	1,486.4	1.1	460.7
아랍에미리트	163,276.0	619.4	72,953.7	330.1
오만	15.1	-	12.5	-
파키스탄	760.8	5,664.5	335.4	1,021.1
파나마	2.7	-	-	-
파푸아 뉴기니	-	-	-	-
파라과이	-	3,480.5	-	2,417.1
페루	7,239.6	45.1	2,515.5	45.1
폴란드	5.7	1,606.7	175.3	-
포르투갈	-	521.3	228.9	-
푸에르토리코	-	1.7	1.3	-
마케도니아	-	1.1	-	1.1
루완다	-	-	-	-
루마니아	58.4	1,701.4	-	678.0
산 마리노	-	0.6	-	-
사우디아라비아	46.8	0.8	2.5	0.1
스와질란드	-	-	-	-
세네갈	-	-	-	-
세르비아	-	2,151.1	-	603.3
싱가폴	1,200.6	11,249.1	677.1	2,698.8
시리아	-	-	-	-
슬로바키아	-	734.3	-	156.0
슬로베니아	-	97.4	-	55.8
영국	1,658.5	16,948.2	915.1	5,009.3
미국	14,181.5	100,305.5	5,384.9	62,277.1
소말리	20.0	-	-	-
유럽연합	-	110.5	-	6.5



수단	-	-	-	-
시에라리온	-	0.3	-	0.1
대만	184,819.6	8,783.2	106,721.0	2,148.7
태국	1,220.1	8,544.0	349.6	3,515.1
탄자니아	-	-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	-
튀니스	-	28.1	-	1.6
터키	-	1,983.3	-	1,091.3
우간다	-	-	-	-
우루과이	-	783.3	-	605.9
페로 제도	-	-	-	-
피지	-	-	-	-
필리핀	14,577.8	1,281.6	2,750.1	523.7
핀란드	-	16,535.8	-	6,732.6
포클랜드 제도	-	-	-	-
프랑스	521.3	18,329.1	126.4	4,427.2
크로아티아	-	17.4	-	17.4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	-	-
차드	23.9	-	23.9	-
칠레	4,947.7	6,515.3	1,044.2	2,486.8
체코	1,078.3	297.3	1,066.8	102.9
스위스	3,479.0	384.2	1,965.4	73.7
스웨덴	169.6	1,713.5	48.8	505.5
스리랑카	139.9	656.1	-	244.2
에콰도르	-	7,424.4	-	2,790.1
적도 기니	-	-	-	-
엘살바도르	311.9	17.4	-	-
에스토니아	41.3	75.9	33.0	44.6
에티오피아	-	-	-	-
남아프리카	104.6	892.0	35.0	334.2
남오세티아	-	-	-	-
자메이카	-	-	-	-
일본	1,056,160.3	122,833.3	441,695.3	54,558.6
기타	251.5	1,716.2	20.0	1,716.1
소계	4,784,022.0	1,276,770.6	2,023,195.4	460,067.4
합계	4,832,693.3	1,298,451.7	2,030,876.0	470,926.4

자료: 러시아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